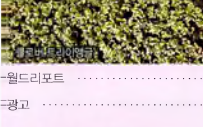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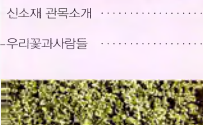


CONTENTS

·티컬처 ③	1
참기이드	2 3
종래리	4 5
다스초이스	6
리꽃명품-4	7
마사리즈-3	8 11



·우리꽃따라잡기	16
----------	----



나티컬처, 그 문화로의 제언 ③

수직정원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라!

이제 수직정원은 그리 낯설지 않다. 전 세계적인 바람이 기도 하지만 이미 국내의 여러 공공장소는 물론 개인 건물들에도 적용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수직정원의 개념에 아직도 수직의 웅변이나 건물 혹은 실내를 장식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수직정원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우선 자연적 제한이 거의 없는 실내의 수직정원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현상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유지해야 하는 실외의 수직정원은 처음부터 접근이 다른 것이다. 우선 관리방법과 설치방법이 다르고 적용식물이 다르게 된다. 따라서 그 기능성도 달라지는 것이다.

우선 실내의 수직정원의 형태는 소형이거나 액자형의 간이 정원이 대부분이거나 공공건물들의 로비를 장식했다 하더라도 실외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기능성으로 본다면 심미적 아름다움과 효과는 거의 같다. 하지만 건물내부의 수직정원은 에너지의 저감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겨울의 보온과 보광이 필요해 관수를 제외하더라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한다. 물론 피톤치드와 겨울습도 유지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여름의 과습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된다. 또, 설치한 후 그 관리에 있어서는 시공회사로 본다면 거의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실외의 경우는 기능면에서 탁월하다. 우선 적용 가능한 수종이 매우 다양하고 자연 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햇빛과 빗물은 물론 바람까지도 이용가능하고 설치의 효과로 실내의 온도를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실내의 습도 조절가능까지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건물의 피부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따진다면 오히려 실내에 설치한 것과는 다르게 매우 큰 에너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이라면 그 관리에 있어 철저한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 많은 수직정원회사들 중 설치철저도 3년이상 유지, 관리된 첨단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아니,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 만큼 수직정원의 설치 철치의 경우 많은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특히 지구의 이산화탄소 심한 최근의 기온에 장담할 회사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꽃벽화수는 지금까지 완벽한 실외의 수직정원을 꿈꾸며 연구하고 전진하여 왔다. 실내수직정원은 기본이라는 뜻이다. 실외 수직정원의 많은 기술 중 식생기반과 관수 그

벽화수를 이용한 교각벽면 및 아파트 방음벽 녹화

광안대교 교각벽면, 대연비치아파트

벽화수는 새로운 벽면녹화의 소재로 그동안 건물벽면, 옹벽, 꽃담, 중앙분리대 등에 시공하여 뛰어난 수직정원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줬다. 남산1호 터널 옹벽, 중랑나들이공원 사무실 벽면, 인천교육청 옹벽, 세종로 중앙분리대 등등... 이번호에서는 벽화수를 이용하여 교각 벽면과 방음벽을 아름답게 장식한 부산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 광안대교 교각벽면 녹화공사

부산지역은 인공구조물, 특히 교량이 많아 교각벽면녹화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이 부산지역도 입면녹화에 대부분 단풍이, 아이비 등을 이용하여 시공되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틀을 깨고 벽면녹화의 새로운 대안인 벽화수를 이용하여 광안대교 교각을 녹화하기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다.

광안대교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해 있고 다리하부의 교각은 원형의 옹벽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음지를 형성하고 있고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해풍이 강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음지에 강하고 겨울 상록성의 식물을 중심으로 소재를 선택하기로 했다. 남부의 따뜻한 기후로 인해 적용식물의 폭은 중부권 비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주 적용수종은 백분동, 수호초, 클라카, 줄사철, 아이비, 미취취, 흰줄무늬대사초, 상록잔디패랭이를 이용하였다. 다만 이렇게 소재를 선정하게 되면 꽃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임파첸스, 한련화 등 일년생 초화류를 포인트로 중간 중간 설치하여 봄, 가을별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다.

시공은 2011년 6월말에 원형교각 4개, 약 230㎡의 면적에 이루어졌다. 교각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가볼트를 교각에 설치하지 않고 아연도강판을 원형으로 별도 용접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녹색의 백분동을 주 바탕으로 90% 이상을 상록성으로 조성하였는데 수호초, 흰줄무늬대사초, 일년생 초화류 등을 중간 중간에 배치하였고 상록잔디패랭이 등의 양지성 수종은 햇빛이 잘 드는 도로변에 식재하였다.

이번 광안대교 교각 벽면녹화 공사는 교량이 많은 부산지역에 하부교각에 대한 벽면녹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벽화수가 쉽게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형의 옹벽교각이라도 손쉽게 설치 가능했고 상록성 속 근조, 일년생 등 벽화수에 다양한 소재의 적용이 가능하였다.

▶ 1면에서 계속

리고 식물의 선택과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열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의 적용이다. 우리는 수년간 수직정원에 필요한 우수한 품종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다. 똑같은 식물이고 내한성이 강하지만 설치 건물의 방향과 풍향에 따라서 고지하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식물은 기본적으로 수직정원에 맞지 않을 것이란 가정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종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수직정원의 가능성에 대하여 꿈꾸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생산성이 확보되는 수직의 정원에 문화의 옷을 입고 새로운 조정의 문화적 성숙의 계기를 준비하고 있다. 조경은 어찌 보면 평면개념이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조경은 왜지 문화라는 말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새로운 조정문화는 수직과 평면의 조화로움 디자인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원은 한국의 정원 문화는 시공을 자유롭게 적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고 특히 실외의 공간에서 가능한 것이다.

과연 우리 한국의 정원은 무엇일까? 전통의 정원이 정자라는 공간적, 문화적, 시간적이며 생활을 모두 담았다면 21세기 우리의 대표정원은 무엇으로 표현할까?



*부산 대연비치 아파트 방음벽 녹화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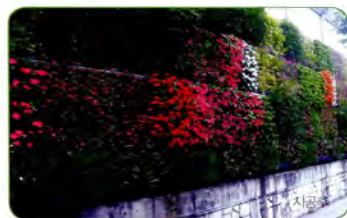
부산지역에 광안대교 교각벽면 녹화공사와 더불어 6월말에 동시에 진행된 현상이 남구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 방음벽 녹화공사이다. 마찬가지로 벽화수를 이용하여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방음벽을 미관상 아름다운 조정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현장여건은 주로 양지면서 일부 가로수가 부분적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어 적용수종은 주로 상록성을 사용하되 대부분 양지이기 때문에 꽃이 좋은 상록잔디패랭이의 적용비율을 높였다. 방음벽 길이는 약 30m 정도 되고 면적으로는 100㎡로 녹색의 백분동과 꽃이 좋으면서 상록인 상록잔디패랭이를 약 30%씩 적용하였다. 그리고 하부 방음벽 옹벽을 가리기 위해 늘어지는 식물인 막삭줄과 비단세럼을 하부에 배치하였다. 비단세럼은 추위에 약한 면이 있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적용이 가능하고 하부

옹벽을 가리는 기능외에도 꽃이 잘 개화하는 특성이 있어 경관적으로도 뛰어난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꽃을 보충해 주기 위해 일년생 임파첸스 등을 중간 중간에 배치하여 일년에 2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삭막했던 공간이 일시에 푸르름과 꽃이 어우러지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새로운 시도에 주민들의 반응 또한 좋았고 이러한 아파트 방음벽 녹화는 아파트 주민 및 통행인들에 대한 정서적, 환경적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덩굴식물을 이용한 벽면녹화를 넘어서 다양한 소재로 수직정원을 보여줄 수 있는 벽화수는 건물벽면, 옹벽, 꽃담, 중앙분리대, 방음벽, 교각벽면 등 어디에나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벽화수는 현재까지 수직정원의 최선두에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톱풀 골드

Achillea 'Coronation Gold'
국화과,



북방계의 식물로 내한성이 매우 강하다. 특히 건조에 강하며 약간의 습기를 가진 토양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 겨울철 물이 많은 곳이나 음지에 약하다. 톱풀 골드는 키가 1m 이상 자라는 고성종으로 짙은 노란색의 화색을 가지고 있고 잎에서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허브식물로서 '아로우'로 불리기도 한다.

눈하늘꽃

Cerastigma plumbaginoides
갯질경이과,



7월부터 파랑색의 작은 꽃이 조밀하게 피어나 10월까지 이어진다. 땅속줄기로 빠르고 넓게 포기를 형성하며 식물 전체적으로 누워 자라는 특성이 있고 꽃이 지고 난 뒤에도 늦가을이 되면 잎이 붉은 단풍이 들어 관상가치를 갖는다. 양지의 건조지, 암석가든용, 중앙분리대 또는 넓은 면적의 토양 피복을 요하는 장소에 적용하면 좋다.

총꽃

Caryopteris incana
마편초과,



우리의 토종 식물로 건조에 강한 식물이다. 겨울에 물이 차는 곳에는 고사하기 쉽다. 내한성이 약한 것 보다는 서릿발 피해를 받아 고사하는 식물이므로 서릿발이 생가지 않도록 보온, 관리한다. 내염, 내간성 식물이므로 바닷가 혹은 염석지 혼합식재에 유리하다.

개랑감국

Chrysanthemum indicum 'Bridal Robe'
국화과,



개랑감국은 일반적인 국화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화색이 다양하고 6월말에 1차 개화를 하고 커밍해주면 다시 9월부터 2차 개화를 한다. 키는 70~80cm까지 자라며 여름에 적당한 크기로 커밍을 해주면 겨울에 쓰러짐 없이 안정된 형태로 꽃을 피운다.

속근꽃향유

Elsholtzia splendens
꿀풀과,



속근꽃향유는 다년생으로 가을 최고의 화색을 자랑하는 향기 있는 꽃이다. 또한 관목성으로 극건조지에서도 잘 견딘다. 배수가 좋고 햇빛이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 더욱 화려하다. 내병성 및 내충성미 있어 재배관리에 편하다. 녹지살을 여름에 깨끗이하여 증식한다.

속근해바라기

Helianthus helianthoides 'Golden Sun'
국화과,



키가 80~120cm정도로 자라는 다년생의 해바라기로 1회 식재로 매년 해바라기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토양은 별로 가리지 않으나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한다. 별개미취와 같은 지하경이 있어 번식이 빠르다. 대형 군식소재로 유용하고 혼합식재시 뒤쪽식물로도 좋다.

사초 아우레아

Carex elata 'Aurea'
사초과,



황금무늬가 아주 고급스러운 수변식물로 양지 및 반음지에서 적용가능하다. 사초 중 대형의 무늬종으로 약 80cm까지 자란다. 특히 이른 봄의 아름다운 정원을 더욱 고급스럽게 한다. 너무 건조 척박한 토양은 잎의 생기가 빨리 떨어져 피한다. 물이 너무 깊으면 생육이 불량하므로 양분이 많은 축축한 토양이 좋다

눈향

Juniperus horizontalis
측백나무과,



상록성의 향나무는 그 종류가 다양해 지피용으로도 매우 알맞다. 특히 건조에 강하므로 최근 극건조현상이 있는 국내 일기에 대한식물로 좋다. 잎의 질감이 뛰어나 건물화단의 피복은 물론 옥상, 법면, 사면 등의 피복제로 매우 좋다. 어린 상태의 겨울나기에 건조성 동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어린 묘목은 되도록 일찍 심는다.

니포피아

Kniphofia uvaria 'mix'
백합과,



이색적인 꽃차례로 재미있는 정원연출이 가능하다. 비옥한 토양에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하지만 사질땅과 같은 물 빠짐이 좋은 곳을 좋아한다. 내한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선택한다. 번식은 늦봄 분주를 한다. 국내에서는 상록성 식물이 좋으나 봄이 되면 낙엽이 되고 새순이 발생되므로 묵은 잎은 잘라주는 것이 좋다.

황금리시마키아

Lysimachia nummularia 'Aurea'
앵초과,



주로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 특성에 따라 저습지 혹은 수변지 등에 식재한다. 건조를 싫어하고 민달팽이 피해의 우려가 있다. 포복형으로 피복속도가 빠르며 고급스런 황금색의 잎은 연출효과를 극대화한다.

눈붉은질레

Rosa maximowicziana 'NunBul'
장미과,



명질레의 변이종으로 포복성이다. 생육이 매우 강하고 순번음이 좋아 활착 이후 1년에 15cm이상 자란다.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지만 빠른 차폐를 위한 식재의 경우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 빠른 자람을 유도한다. 포도송이와 같은 모양의 꽃차례는 30cm정도로 크고 마디마다 꽃이 맺힘으로 온통 꽃담발을 형성한다. 외대로 길러 통굴게 가지들 내어 꽃을 피우면 최고의 포인트 식물이 된다.

클로버 트라이앵글

Trifolium repens 'Triangle'
콩과,



잎의 중심부에 흑갈색 무늬가 들어있으며 생육이 강건해 어디에서도 잘 자리지만 물기가 많은 양지에서 생육이 좋다. 포복성으로 나무아래 피복용으로도 좋으며 특히 다른 클로버 품종(적엽, 트리칼라)과 조화를 이루어 문양을 연출할 때 유리하다.

파니쿨

Panicum dichotomiflorum
화분과,



키가 70~80cm 자라는 그라스로 지하경을 뺀어 번식하고 가을이삭이 매우 아름다우며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헤비메탈과 같은 품종은 잎이 파랑색으로 여름에도 고급스럽다. 잎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하얀 갈색 줄기가 일품이다. 무리를 지어 식재하면 더욱 좋고 그라스정원 조성시 뒷라인 식물로도 적용해도 좋다.

개랑앵초

Primula veris elatior 'Choice mixed'
앵초과,



낙엽활엽수 아래 반음지는 물론 햇빛이 좋은 초원에 좋은 품종이다. 비옥하고 축축한 토양을 좋아하며 여름건조를 싫어한다. 키가 작고 화색은 혼합으로 수변, 혼합식재에 매우 좋은 식물이다. 민달팽이의 피해와 여름철 건조기에 잎이 타는 현상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른 봄 최고의 앞쪽라인 화단식물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도입품종 또는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소개함으로 현장에서 조경용 소재로 숙근지피식물을 선택하는데 있어 한 발 앞서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호스타

→ 잎이 참 좋은 식물이고 큰 잎을 가진다.

목장은 비너를 뜻하고 비비키는 나뭇을 뜻한다.
우리는 목장과 비비키를 단순히 모양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목장은 우리의 산 혹은 자연에 있을까?



비비추는 우리의 산과 들의 물
가나 수로에 자생한다. 특히 산
목의 활엽수 아래 혹은 산지의
작은 냇가 바위 곁에 붙어서
그 청초함을 더한다. 옥잠
은 우리에겐 없다. 중국
의 사천성과 운남 등지
에 나는데 주로 이끼가 끼
는 수림의 습기 높은 곳에 자
생한다. 그런데 우리는 옥잠은

귀한 듯하고 비비추는 한 단계 낮은 듯 인식한다. 옥잠의 꽃은 해질 무렵피어나 밝은 달빛을 받아 옥같이 빛을 발하고 비비추는 새순을 나물로 해 먹었다. 채소로 생각했다는 뜻이며 옥잠은 집주변에 심어 가꾸어 좀 더 귀하게 여긴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많은 정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호스타라 명명된 식물을 본다. 우리의 비비추나 옥잠은 모두 호스타이다. 호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종에 달하는 대표 정원 식물군이다. 우리나라 절화로 비교 한다면 장미나 백합과 견줄만 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비비추도 좋지만 호스타(HOSTA)라고 통칭되는 학명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자.

호스타는 자생지 대부분이 나뭇잎사이로 드는 햇빛이 있는 습도가 높은 곳이거나 햇빛은 강하지만 물이 흐르는 작은 물로만 바위 옆에 자란다. 그래서 우리는 호스타를 수변식물로 간주한다. 물론 아직 국내에서 호스타를 읍지에 심는 호스타로 주로 알고 있고 수변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사실 호스타는 읍지를 좋아하는 식물이고 그보다는 약간의 습기가 있는 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체로 습기가 있거나 습도가 높은 곳을 말한다. 때문에 우리가 호스타를 정원에 적당할 때는 토양습도를 살펴서 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호스타는 잎이 참 좋은 식물이고 큰 잎을 가진다. 엔데강스와 같은 품종은 잎의 지름이 30cm가 넘는 품종도 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품종들이 정원의 황태자로 군림한다. 따라서 호스타티어라는 별칭의 정원을 거느리게 할 만큼 품종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을 가진다.

이제는 우리도 호스타를 제대로 대접할 때가 온 것이다. 특히 호스타는 요란하지 않고 짐작케 정원을 표현한다. 그리고 해가 좋은 곳이나 뒤안 해가 좀 약한 곳에서든 아름다운 미소를 주는 식물이다.

그러나 좀 주의할 것도 있다. 우선 물을 좋아하며 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좋다. 그리고 그 비료는 퇴비와 동물성비료가 다 좋은 이유와 반박이 있을 선물한다. 어떤 품종은 꽃도 좋지만 많은 비료 종들은 꽃이 피면 비료가 약해진다. 때문에 꽃대를 올려 개화를 시작하면 적당한 수의 꽃을 보면 잘라주어야 이후의 모양이 좋아진다. 그리고 장마 이후에 잎의 무늬가 화려하지 않아 잎이 지는 현상까지 모든 일을 아래서 3cm쯤 남기고 깨끗이 잘라주면 다시 아랫부분이 신선한 잎을 피워낸다. 물론 비료가 충분한 재경양묘에 다 좋은 모습을 올려준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호스타의 무늬종은 본 식물의 기가 다 자란 정도의 간격으로 심어주어야 화려적이다. 예를 들어 보통 옥상은 50~60cm 정도이다. 때문에 옥상은 50~60cm 간격으로 심어 두게 될 경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게 된다. 하지만 평소 m당 20본 이상을 심어만 방범은 잘못된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심어도 시간이 지나면 4~5본씩 잎이 피기까지는 보여진다. 때문에 처음에 심을 때 2~3본씩이 아니라 7~8본씩을 심거나 본질 수는 적더라도 몇몇 크기가 엄청 손가락 굵기 이상과 4~5본일 이상을 심어주면 된다.

이제 식물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우리꽃은 창시 이래 조경용 표창 및 종자 시장에 많은 신제품을 선보여왔다.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잔디패랭이, 우리법면허준초, 눈봉숭대 등등...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에도 한창에 적용되어지고 지금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너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며 지금까지도 초경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우리꽃 멀뚱'을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지

우리꽃 명품-4

우리꽃이 첫 선보인
가우라

이제 도로가의 필수품종이 되었습니다.

가우라는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속근초이다. 생육이 강하고 6월부터 개화하여 서리가 내릴때 까지 꽃이 피는 장기개화종의 대명사이다. 제주도에서는 12월초까지도 꽃을 감상할 수 있어 도로변에 지나치다 보면 빨강색, 흰색의 가우라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바로 이 가우라도 우리꽃에서 도입하여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경환경에 적용하였다. 천안의 산과 고속도로변, 태안군내 도로변 식재 등에서도 식재되면서 장기간화되어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요인으로 꼽혔다. 식물의 지체형 등을 통해 폭박적인 수요가 무뎠다. 품종이 색상분류 3품종이 있어 하얀색의 경우 내한성이 강하지만 분홍색과 빨간색은 내한성이 약해 중부권에서는 월동이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워낙 화기가 길고 꽃이 줄기 때문에 일년생 대응에도 좋고 매년 같이준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가치를 해주는 품종이다.

이제는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여 보급하고 있어 많은 현장에서 제1의 즐거움인 품종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꽃은 그치지 않고 가우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가우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키가 커서 잘 쓰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키가 작고 단단하며 화수가 더욱 맑고 화색이 다른 다양한 품종을 개발 중이다. 그 중에서 가우라 베이비와 그린스마일 품종을 새롭게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가우라 베이비는 가우라보다 작고 줄기가 단단해 쓰러지기 거의 없는 것을 골라 분
리, 선별한 종종이다. 그 외 가우라는 가지의 장기화현, 생육 환경 등의 특성은 그대
와 같고 있어 앞으로 전량이 기대 되는 품종이고 은은한 느낌의 꽃은 절리지 않고 오
래로 아름답게 볼 수 있다. 가우라 그라스마일 또한 가지 작이 쓰러지질 않고 일출
부위 그늘쪽의 부위가 있다. 꽃은 하얀색으로 화수가 많이 있어 씨앗을 매우 조밀한
느낌을 준다. 가우라는 1년에 2~3회 만개 후 잎과 꽃대 사이를 거름을 해주지 않으면
갈색 자라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품종의 경우 꽃대가 짧아 마른 일출
으로 컷팅 시기를 놓치거나 오래 관찰산 나쁘지 않아 관리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6)



시험재배중인 가우라 신품종들



제주 에코랜드 테마파크에 신'재'되어진 가우라 베이브



꽃과 함께하는 골프장 경관조성



골프장은 대부분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각 홀의 특성을 살려 꽃과 조화를 잘 이루어 조성한다면 효과적이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골프장 특성상 면적이 넓기에 꽃으로 연출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많은 공간을 모두 꽃으로 하기에는 비용을 감당해 낼 수 없다. 그렇기에 적재적소에 알맞은 소재와 식재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와 비용절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한 시공까지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꽃은 그동안 많은 골프장현장에 적합한 좋은 소재와 식재공법을 소개하고 현장에 직접 시공하여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의 시공 및 납품현장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골프장 현장에 꽃을 이용,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소재의 선택

1990년대에는 야생화에 대한 관심이 일면서 조정현장에서 우리야생화가 주로 지피식물로 식재되어졌고 골프장 또한 이때 많은 부분이 우리야생화로 식재되어졌다. 하지만 우리야생화는 조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식재 후 조정담당자들은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많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피식물에 대한 소재도 많지 않았기에 선택의 폭도 작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꽃은 우수한 신품종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소개했다. 그 뒤에도 매년 우수한 품종을 내놓았고 지금은 자체로 개발한 품종까지도 선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우수한 숙근초 소재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넓히는데 우리꽃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우리꽃은 이런 좋은 숙근초 품종들을 시장에 첫선을 보이면서 처음에 선택한 곳이 골프장이었다. 오래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한 반응은 크게 다가왔고 많은 다른 골프장에 알려지게 되어 많은 숙근초 품종이 골프장에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소재의 보급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재공법 또한 필요가 있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공하게 되었다.

공법의 선택

기존에 식재패턴은 한 가지 식물 내지 두세가지 식물로 군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꽃이 필 때는 좋지만 그 이후에는 한계가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꽃이 지면 볼거리 없고 꽃이 장기개화되더라도 경관의 변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좋은 소재들을 더욱 빛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재패턴이 필요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하루 식재에도 디자인개념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혼합식재이다. 여러 가지의 식물들을 한 장소에서 화기, 화색, 초장 등 특성을 감안, 디자인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형 암석정원인 ARI가든, 종자를 이용한 법면의 새로운 녹화시스템인 우리법면시리즈, 혼성식재 등 이 모든 것이 골프장에 적용되어 각광을 받아왔고 중부C.C., 라데나C.C. 등은 설계회사의 견학코스가 되기까지 했다.

좋은 소재와 식재공법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됐을 때 최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의미에서 식재공법별로 분류하여 사진과 곁들여 현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식재공법-1

ARI (Alpine Rock Island) Garden

그늘집



클립하우스



코스 주변



진입로



계류와 함께는 대면적 명품홀



ARI가든은 일반적인 암석가든과는 차별이 되는 우리자원의 선과 맛을 새롭게 정원에 녹여낸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보는 암석가든과도 차이가 있다. 밝은 색의 돌과 둥근형태의 마위, 다양한 식물 배치의 효과적 적용으로 연중 새롭고 아름다운 조정테마가 되고 있다.

ARI가든은 골프장내에 직접하게 조성함으로써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론 겨울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연중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해 준다. 골프장내 주요 조성할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클립하우스 주변이다. 골프장의 얼굴이자 시작점인 클립하우스에 들어올 때부터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메인화단은 잔디밭에 소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거나 클립하우스 주변 여러화단 중 핵심이 되는 곳에 시공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두번째는 그늘집

앞, 고객이 쉬어가는 장소로 쉬면서 시선이 주로 머무는 곳으로 조성하며 면적이 작은 소화단은 세미ARI가든으로 해주면 된다. 그 외에도 홀과 홀 사이에 정체가 되어서 고객들이 많이 머물거나 또는 포인트가 되는 곳에 적용하면 좋고 특히 중부골프장의 14홀과 같이 계류가 포함된 대면적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명품홀로서 조성하는 것도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스 진입로쪽의 화단으로 항상 시작점의 이미지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점을 감안하여 진입로쪽을 ARI가든으로 조성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골프장에도 독립된 조정공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학적인 식물과 암석의 배치는 공간연출의 독립된 섬과 같은 공간을 새롭게 연출하여 아름다운 자연으로 태어나게 하고 있다. 특히 식물 하나하나의 특성이 잘 나타나 계절에 따른 고요스러운 변화를 즐길수 있도록 해준다.

식재공법 -2 혼성, 혼합식재



혼성, 혼합식재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식물을 생리적, 생태적으로 조합하고 시기별, 품종별 특성과 화색을 고려한 식재방법이다. 식물의 상호관계를 중시한 식재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연주 감상 가능한 정원을 보여준다. 봄부터 가을까지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식물의 상호관계 복원이며 골프장을 더욱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연출하여 시기별, 계절별 변화를 느끼게 해준다.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주변, 코스내 포인트가 되는 지역, 그늘집 및 폰트 주변 등 어디에 적용해도

가능하며 현장분위기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일조량을 감안해서 많은 식물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식물을 이용하여 연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기 때문에 식재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것이 경관연출에 유리하다.

이 혼합식재의 가장 큰 핵심은 설계자의 적용식물에 대한 생리, 생태적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시공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동아 파인밸리

식재공법 -3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

2000년도 처음 시장에 등장한 우리법면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혼합종자 시대를 열었다. 일년생과 다년생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하는 시스템으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골프장의 넓은 법면을 효과적으로 녹화 및 꽃으로 경관연출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소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암석지, 일반지, 습지 주변까지 1회의 살포만으로도 아름다운 경관 연출이 가능한 전천후 혼합종이다.

기존 골프장은 대부분 꽃이 있는 경관조성

이라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디를 때리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삼작의 동양파인밸리 C.C.와 같이 건설 당시 법면에 시공하게 되면 대면적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우리법면시리즈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관보다는 대면적의 멀리서 보는 경관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골프장내 고객회 시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코스내, 주변, 폰트 주변 등 대면적에 꽃을 많이 이용하는 효과와 미용면에서 최상의 소재이다.



▶ 동아 파인밸리 C.C. ▶ 동양 파인밸리 C.C. ▶ 동양 파인밸리 C.C. ▶ 동양 파인밸리 C.C.



▶ 동양 파인밸리 C.C.

▶ 동아 파인밸리

골프장에 잘 어울리는 속근초

가우라



가아 C.C.

본드 주변으로 군식되어 있는 모습. 물리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골드레이크 C.C.

정기개화종으로 골프장 진입로 하단에 열식되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속근코스모스



중부 C.C.

푸른 잔디밭을 바탕으로 노란 속근 코스모스가 만개되어 있는 모습



양지파인 C.C.

그늘집 옥상층에 식재되어진 오랜지속근코스모스



골드레이크 C.C.

골프장 진입로 하단에 열식되어 노란물결을 이루며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눈붉은젤레



양지파인 C.C.

진입로 양벽녹화용으로 눈붉은젤레가 식재되어 있다.



렉스필드 C.C.

전년도 늦가을 식재후 이듬해 본격적으로 자라면서 꽃을 피운 모습

스텔라원추리



신원 C.C.

폰트 주변으로 키가 작고 장기간에 걸쳐 스텔라원추리가 열식되어 있다.



중부 C.C.

6월초 다화성의 스텔라원추리가 화단 한켠에서 만개되어 있는 모습

꽃백합



라테나 C.C.

클럽하우스 주변 철쭉식재지에 철쭉사이로 꽃백합을 혼성식재한 경우. 봄에는 철쭉꽃을 여름에는 꽃백합을 감상할 수 있다.



골드레이크 C.C.

진입로 철쭉화단에 다양한 화색의 꽃백합을 혼성식재한 모습



가아 C.C.

7월경 진한 주황색의 꽃백합이 철쭉사이를 뚫고 만개한 모습

황금조팝

레인보우힐스 C.C.

코스내 홀과 홀사이 이동동선 등에서 경관적으로 핵심이 되는 곳에 황금조팝으로 군식하여 황금색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



꽃잔디 레드킹

골드레이크 C.C.

클럽하우스로 올라가는 사면에 잔디를 바탕으로 철쭉주변으로 꽃잔디 레드킹이 붉은 물결을 이룬다. 꽃잔디 품종중 레드아이, 에메랄드 등을 혼합해서 식재하게 되면 더욱더 환상적인 경관을 볼 수 있다.



신소재 관목소개

앞으로 경관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관목은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9년부터 2년간 경관적, 기능적으로 뛰어난 관목들을 이 코너를 통해서 연재하였다. 그 동안 소개하였던 관목들을 다시한번 요약하여 한자리에 모아 여러분에게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목소재를 찾아 여러분에게 안내할 것이다. -편집자주-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무늬키버들

▶ 수변식물용, 울타리용으로
좋은 소재입니다.

근래 들어 4대강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생태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갈대, 물억새, 꽃창포 등 많은 수변식물들이 식재되고 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종이 키버들이다. 갯버들과 더불어 생태하천에 군식으로 식재되는 수주종으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다.

키버들은 고리버들이라고도 하는데 들이나 물가에 자라고 키는 약 2~3M정도 자란다. 줄기는 노란빛을 띤 갈색이며 가지를 길게 뻗으며 자라고 보들보들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겨울눈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잎의 형태는 줄 모양의 바소꼴로서 끝이 뾰족하며 앞면은 짙은 녹색, 뒷면은 흰색을 띠고 가장자리에 뚜렷하지 않은 톱니가 있다. 줄기는 바구니와 키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번호에 소개하고자 하는 수종은 키버들 중에서도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무늬키버들이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적용이 미비한 수종이지만 좋은 관목소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수종이다. 기본적인 형태나 생태적인 특성은 일반 키버들과 유

사하나 잎의 아름다운 무늬가 특징적이다. 이른 봄에 새순이 나올 때 잎에 하얀 바탕에 붉은색이 가미되어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시원하면서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어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특히 이른 봄 꽃이 없는 시기에 보여주는 경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지어낼만큼 인상적이다. 또한 생육이 강건하여 약 30~40cm 정도의 포트묘를 심어도 식재지의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만 지나면 거의 2M가까이 자랄 정도로 빨리 자란다.

규모가 작은 소연못 또는 계류 주변에는 다른 수변식물 차이로 포인트식재를 해주면 좋고 규모가 큰 생태하천 주변에는 군식하거나 앞면 키버들을 군식한 사이사이에 포인트 식재해도 좋다. 또한 수변지가 아니라 일반지에서도 가작치기 등 관리만 잘해준다면 울타리용으로 적용해도 잘 어울린다. 앞으로 무늬키버들은 수변지 뿐만 아니라 울타리용으로도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관목소재이다. ☺





목·요·특·강

지피식물(야생화)을 이용한 새로운 조경식재방법 소개!

[홍성/조한식재, ARI가든, E&P(생태연못)방법, 벽화수 및 식생매트 외]

대표강사 / 우리꽃 대표 박 공 영
 숙근지피식물(모종, 종자) 생산 및 시공전문회사 우리꽃에서
 친환경적 및 생태조경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피식물을 이용한
 조경식재방법을 소개합니다

시 간	매주 목요일(10월 6일 시작) 14:00~17:00 / 19:00~22:00 (택1)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물루빌 313호
교재비	30,000원(수강료 포함)
수강접수/문의	031) 712-7001 우리꽃비화소(주)

본 강의를 정월 미달시 예고미이 폐강되거나 강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정식 대표는 허브와 향기요법의 보급을 위해 경기도 포천시 군모리에서 허브&아로마체험센터인 '생활의 향기'를 5년째 운영중이며 원광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생활아로마건강연구소 소장, 강원도 허니스파크 허브체험센터를 운영하며 허브와 향기요법의 대중화에 헌신하고 있다. 그가 4년전에 저술한 '생활의향기 Herb'책 또한 일반인들에게 허브와 향기요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편집자주 -

우리꽃과 사람들

—
향기가
있는
생활



생활의 향기
대표 윤정식

꽃이 저마다의 향기를 지니고 있듯이 우리도 각자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 1992년 대학교 2학년때 처음 접한 '식물분류학'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흠뻑 정헌배박사님과 첫 만남이자 내 삶에 "植物"이라는 테마가 날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아니 다시말하면 교수님에게 매료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첫 강의시간에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진정한 친구(知友)의 의미와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르침 등등... 그 시절 나는 결심을 하게 된다.

"大自然의 法則을 植物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식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리라!"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왔음을 내 발자취(足跡)를 보며 느낀다. 일본, 미국 생활을 마치고 2000년부터 허브와 향기요법(AROMATHERAPY)을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직접 병원, 피부관리실, 한의원,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아로마테라피 임상실험을 해왔으며 그 임상을 토대로 한국아로마테라피협회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사, 한의사, 간호사, 허브관리 종사자, 피부관리 종사자, 일반인 대상으로 수많은 교육을 해오면서 허브와 향기요법으로 건강해지는 삶에 대해 보급코자 노력해 왔다. 2006년도에는 허브와 향기요법을 일반인들이 쉽게 적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의향기> 허브&아로마테라피 체험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설하였다. 2010년도에는 <생활의향기>를 경기도 최남에서 국립수목원이 위치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으로 이전하여 허브샵과 허브체험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봉평에 위치한 워너스파크에서 <허브체험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허브향기로 건강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2007년 원광대학교와 인연이 되어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로 올해로 5년동안 <향기요법>을 강연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출간한 <생활의향기 HERB>는 꾸준히 사랑을 받아 허브와 향기요법을 배우려는 초보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H.E.R.B - "향기가 있으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

나는 허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까?"
 "허브 香氣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듯이 어떠한 이론은 일을 주변에 하고 계시니까"

식물, 허브를 통해 大自然을 매일 만나고 태양에너지(음)와 태양에너지(양)의 음양의 조화, 더 나아가 지구, 달(月), 태양(日), 지 광활한 우주...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 우리가 인식하는 하지않은 자연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안에서 자라나듯이 우리 모든 생명체는 그 사랑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이 자연의 위대한 법칙을.... 즉, 식물들 통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지구와 태양, 달, 그리고 우주와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人과 植物, 그리고 태양과 만물의 모체인 토양,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앞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식물이 저마다의 香氣를 지니고 있듯이 내가 살아가는 매일 매일 내 주위에 맑고 신선한 향기를 전하고 싶다. ☺

프랑스 쇼몽 국제정원



쇼몽 국제정원 페스티벌은 1992년 시작되었다. 벨기에 조경가JACQUES WIRTZ가 기본계획을 맡았다. 쇼몽성에 딸려있던 3.5HA 규모의 농장부지를 각각 250㎡씩 30개의 쇼공간으로 구획해 놓았는데, 각각의 정원 부지는 종 모양 혹은 튤립 모양을 띠고 있다. 페스티벌의 원년인 1992년을 제외하고 1993년 이래 가든 페스티벌은 국제 공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전시회의 새로운 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 특정한 주제 하에 응모되는 작품의 수는 매년 300개에 달한다고 하며, 그 정원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식물의 재배와 응용기술들을 충분히 나타냄으로써 실현 가능한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 주제는 해마다 바뀌는데 예를 들면, 과거 1996년의 경우 '기술은 시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을까', 1999년에는 '여기에는 야채밭에 없다네' 등 재미있는 주제가 선택되었었다. 최근, 2009년에는 '색의 정원', 2010년에는 '봄과 영혼의 정원', 그리고 2011년에는 '미래의 정원과 종 다양성'으로 생태조경관련 정원으로 주제가 선정되었다. 초기에는 개최기간이 6월부터 10월 중순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개최되고 있다.

독일 정원박람회가 매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과 달리 쇼몽과 영국의 웰시플라워쇼는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하지만 쇼몽과 웰시는 개최기간에서 같지만, 웰시는 단 5일간만 개최되는데 비해, 쇼몽은 독일 정원박람회처럼 약 6개월 동안 열린다.

때문에 계절에 따라 각각 다른 매력을 맛볼 수 있고, 대부분의 정원이 해마다 새로 조성되지만 몇몇 정원은 몇 년간 존치되기도 한다. 웰시가 정원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에 집중한다면, 쇼몽은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변화의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든 페스티벌이 열리는 쇼몽성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맛있는 고성이 어우러져 있는 루아르 강변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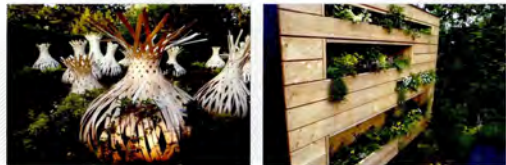
계원조형예술대학 화훼디자인과 권진욱 교수는 "쇼몽의 작품들은 마치 계절에 앞서 앞으로 유행할 패션 트렌드를 전 세계에 미리 소개하는 프레타 포르테나 오

(권진욱, "쇼몽가든페스티벌과정원디자인(1)", 계간 "조경대사총서" 통권 58호, 2010)

(출처: 프랑스 쇼몽 국제 정원 페스티벌의 시사점(최성자 머론 등)

(발행: 경기농림진흥재단 그린경기 가든도시)

사진 출처 HTTP://LEODAMGAN.WORDPRESS.COM
HTTP://FR.WIKIMEDIA.ORG/



봄 축제 위한 최고의 소재 추파용 종자

1. 풍부한 경험

우리꽃은 포천식물원 양귀비 축제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Biennial(이년생)추파용 종자를 이용한 지자체의 봄꽃축제를 제안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광 꽃누리 축제



▲영인 내동마을 꽃축제



▲파주 심학산 들꽃이 축제



▲포천식물원 양귀비 축제



▲함양 불로리아 꽃축제

2. 차별화된 소재와 디자인

우리꽃은 양귀비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봄꽃축제에 선보였고 그 외에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Biennial(이년생)추파용 종자를 이용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레국화



▲아이슬란드양귀비



▲안개초



▲경채



▲잉글랜드양귀비 분홍



▲잉글랜드양귀비 적색



▲자색재



▲잉글랜드양귀비



▲폴라모니아양귀비 노랑



▲폴라모니아양귀비 하양



자연의 담은 사람들 (우리꽃 박화수(주))
상당정원 031)712-7001, 7119
팩 스 031)712-7991

양귀비 전문회사
우리꽃과 상담하십시오
우리꽃이 전문가입니다.

15

식물의 생활사-②

변화적응된 기관



엽상경

다육성 식물의 변화된 줄기로 엽상경이라 일컫어 있으며, 잎의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많은 식물들이 주변 환경과 그 상태에 맞게 변화된 싹과 뿌리 기관을 발달시켜왔다. 덩굴 식물들의 구불구불한 덩굴손은 위쪽의 빛을 찾아 버팀대를 움켜쥐는데 알맞도록 변한 줄기 혹은 잎사귀이다. 가시는 초 식물들을 저지하기 위해 변화된 가지이다. 선인장과 같이 건조한 환경에서 나는 식물들의 잎은 수분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가시의 형태로 변하였고, 부어올라 흡수 풍부한 줄기는 광합성을 하고 물을 저장한다. 바오밥 나무(*Adansonia digitata*) 또한 강우량이 적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동안에도 주요 기능과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물로 찬 조직에 의해 나무 몸통(줄기)이 부풀어 오를 경우이다.

어떤 식물들은, 지상계의 중요한 과정을 땅 밑에서 겪는다. 땅 밑에서 자라는 줄기는 구근, 구경, 덩이줄기, 그리고 뿌리줄기와 같이 부어오른 구조이며, 식량 저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이 식물들은 갈라지는 것

(단복자) 또는 주이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체 수를 늘린다. 이러한 식물들은 휴면기에 들어하면 뽕과 쫄면 후에 다시 심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단한 번식 수단으로 여겨진다.

다른 부분 줄기들과는 다르게, 근경은 보통 토양에서 가까운 곳이나 지면에서 수평으로 자란다. 다른 평범한 줄기처럼 뿌리가 밑쪽에서 자라지 않고, 길게 늘어진 근경을 따라 마디에서 무지위로 난다. 특정 꽃과 같은 몇몇 두해살이식물의 근경은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나무 *Yushania anceps* 와 같은 다른 식물의 근경은 넓은 공간, 빛, 수분, 그리고 영양을 차지하기 위해 보다 어린 식물 경쟁자들을 물리치며 매우 힘차고, 빠르게 뻗어나간다. 어떤 특정한 식물이 우점하거나 급속히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성장 형태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수술과 암술



대부분의 식물은 수술과 암술의 번식 기관을 모두 지닌 암수 한 몸(자웅동체) 꽃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수분하거나, 같은 종의 다른 식물에 의해 수분되어진다. 이 외에 다른 식물들은 단성화(單性花)를 피운다. 자웅동주의 한 식물에서 수꽃과 암꽃이 분리되어 만들어 진다. 자웅이주의 식물에서, 꽃들은 모두 수꽃이거나 혹은 모두 암꽃이다.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컷과 암컷 식물을 모두 길러야 한다. 암수 한 몸이면서 단성이기도 한 자웅 혼주는 그 수가 적다.



▶ 암수한꽃식물

각각의 꽃이 수컷과 암컷의 기관을 모두 갖고 있다. 스스로 수분하거나 같은 종의 다른 식물에 수분될 수 있다.



▶ 암수한그루

꽃들은 수꽃이거나 혹은 암꽃이다. 한 개체에 수꽃과 암꽃 모두 가진다.



▶ 암수따그루

수꽃과 암꽃이 각각의 다른 개체의 식물에서 자란다. 번식을 위하여 둘 모두가 필요하다.



특화된 뿌리

씩이 때로는 땅 밑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로, 뿌리 또한 땅 위에서 자랄 수 있다. 아이비(*Hedera*)와 같은 반연식물은 줄기로부터 공중을 향해 마구잡이식으로 자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뿌리는 식물이 안전하게 지지를 때 까지 어떠한 표면에도 꼭 매달려 아주 작게 갈라진 틈 사이로 뚫고 들어간다. 반개와 같이 널리 퍼지는 습성을 지닌 키 작은 식물들 중 많은 수가 마디로부터 무지위로 뿌리를 내린다. 재배할 때, 번식을 목적으로 휘어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근은 착생하는 식물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이들은 다른 식물에 안착하여 땅이 아니라 대기에서 수분과 영양을 얻는다. 열대 우림에서 착생 식물들은 빛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나무의 높은 가지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식물들의 뿌리 체계는 땅위에서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다. 이 식물들은 비교적 두꺼운 뿌리가 덩굴손과 비슷한 방식으로 나뭇가지를 감싸 그물망과 같은 형태로 튼튼히 고정되며, 빗물을 흡수할 수도 있다.

판다누스(*Pandanus*)와 반얀 나무(*Ficus microcarpa*, *F. benghalensis*)와 같은 많은 나무들이 생수하게 되면 자신들을 지지해 줄 뿌리들을 지상 위로 추가적으로 발달시킨다. 예를 들어 직근(*Silt roots*)은 나무의 몸통에서 마구잡이로 자라는 뿌리들이다. 반면에 나무 몸통이 지라거나 융합된 마구잡이의 기근이 형성되어 나무의 추가적인 지지대로써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두 종류의 뿌리 모두 토양에 비교적 얇거나 흙벽 처 있어는 열대림의 나무에서 흔히 발견된다.

열매



열매는 꽃을 피우는 식물의 씨방에서 형성된다. 꽃들은 씨앗을 지키며 씨앗의 확산을 돕는다. 부드럽고, 과육이 많은 열매들은 동물들과 새에게 먹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씨앗을 퍼뜨린다. 씨앗을 뿌리기에 적합한 때가 오면 마른 공각자(*dry pods*)나 포자낭이 활짝 열린다. 침엽수의 월동형 열매와 다른 겉씨식물들은 씨방에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열매가 아니다. 하지만, 주목 나무(*Taxus*)와 같은 침엽수는 부드럽고 배리 같은 구조물을 형성한다. 그러나, 과육은 부모의 씨방에서 생긴다기보다 다른 씨앗 그 자체에서 형성된다.

